

제주시 워싱턴야자 가로수 사라지나

시, 식재 30년 넘어 꺾임 등 안전우려에 수종교체키로 단계적 추진 공감대... 심의통과시 내년부터 예산 반영

제주시 곳곳에 심어져 이국적 풍경을 연출해온 워싱턴야자 가로수가 단계적으로 다른 수종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심어진지 30년이 지나 높이가 10m 안팎까지 훌쩍 자란 워싱턴야자는 고령화로 태풍 등 강풍 때 상단이 부러지며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데다, 전선에 닿아 정전피해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다. 아열대식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나무지만 제주에선 안전 문제로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야자 수종갱신위원회를 열어 제주시 동 지역에 가로수로 심어진 워싱턴야자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공항로와 함덕해수욕장 일대 워싱턴야자는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조만간 제주시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인 교체를 위해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비를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로수를 연속해서 10그루

이상 교체하거나 100m 이상 구간에 신규 식재할 때는 도시림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제주시 도로변에는 1980년대 삼무로를 시작으로 워싱턴야자가 가로수로 식재돼 현재 총 20개 노선에 1165그루(동지역 933그루, 읍면 232그루)가 남아있다. 이들 워싱턴야자는 평균 높이가 8m를 넘어 태풍 내습 때 상단이 꺾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제주시와 한국전력 제주본부가 함께 동부경찰서에서 연삼로를 잇는 가령로 구간에 심어진 워싱턴야자 40그루를 뽑아내고 만나무로 교체하기도 했다. 10m

에 얽혀 정전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1단계 개발지역에선 1980년대 초반엔 심은 워싱턴야자 280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 2018년 제주를 관통한 태풍 '솔릭'과 '콩레이'의 영향으로 100여그루가 부러지자 안전을 우려해 지난해 7월 모두 베어냈고, 논란 끝에 연말 만나무와 종려나무를 대신 심기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워싱턴야자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안건이 제주시도 도시림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제주여건에 맞는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고, 내년과 내후년 수종갱신사업비를 단계적으로 반영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코로나에도 유흥업 활황?

제주 풍속업소 증가율 최고 단란주점 전년비 203곳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치에도 제주지역 '풍속 영업 업소'가 지난해보다 294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매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풍속영업업소 변동추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도내 풍속업소는 3696곳으로, 지난해 3402곳보다 294곳(8.6%)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다. 업종 별로는 단란주점이 지난해 398곳에서 올해 601곳으로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숙박업(1443→1478곳), 노래연습장(328→348곳), 게임장(176→192곳), 이음업(213→223곳) 순이다. 강다혜기자



순백의 메밀꽃 내려앉은 제주가를 지난 10일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한 메밀밭에 순백의 메밀꽃이 만개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76% 건강 '빨간불'

전체 8.4%만 정밀건강진단 '의무조항 개정·국고지원율'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이상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도내 소방공무원 812명 중 620명(76.3%)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거나 발병 우려가 높은 건강 이

상자로 확인됐다. 이 중 52명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적임법' 소견이 있거나 직업과 관련한 건강 문제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건강진단'은 특정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보통의 정기 건강 진단 외에 실시하는 건강 진단을 말한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건강 이상자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2차 '정밀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복지법 상 특수건강진단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극히 일부만이 정밀건강진단을 받는다. 세초, 전복 등은 정밀건강진단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선 건강 이상자 620명 중 52명(8.4%)만이 정밀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걸맞게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정밀건강진단 실시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소방관들의 건강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내일부터 전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만 13~61세부터 접종 시작 62세 이상은 오는 19일부터 국가접종 제외 도민도 대상

13일부터 전 도민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 국가 무료 접종에서 제외되는 만 19세부터 61세 도민들도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절기를 맞아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비슷한 증상의 감염병 동시 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의료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민들이 집단면역을 갖출 수 있도록 '생후 6개월에서 18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국가 무료 접종(24만명)에서 제외되는 '만 19세부터 61세 도민(29만6000명)'까지 포함해 전 도민(69만5519명)의 80%에 해당하는 총 53만6000명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우선 만 13세부터 만61세 이하(2007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이 진행되며, 62세 이상 어르신은 백신 공급 완료 후인 1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접종 현장의 혼잡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예방접종은 도내 총 358개소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293개소 위탁의료기관이나 65개소 보건기관(보건소 6, 보건지소 11, 보건진료소 48)에서 할 수 있다. 도민들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예방접종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방접종 일정, 지정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 예약 후 접종하면 된다.

특히 보건기관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도입해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 4~9, 금 5~0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접종을 실시하는 만큼 접종일자를 확인해 방문해야 한다.

도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과 접종 후 항체생성 및 지속기간(접종 2주 후부터 생기기 시작해 평균 6개월 정도 유지)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청렴 제주교육' 내건 도교육청

공직자 부패 예방교육은 '펼쳐'

교육실적 87점으로 최하위

청렴을 외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정작 '공직자부패교육' 실적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도교육청의 공직자부패 교육 실적은 87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제주도교육청과 같은 87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경상북도교육청 94점, 강원도교육청 96점 순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신규임용자와 승진자의 경우 대면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초부터 4월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에선 교육이수율과 기관장 참석 여부, 고위공직자와 승진자·신규임용자의 교육이수율, 교육방법을 평가하고, 연간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와 교육홍보 자료를 자체 제작했는지 여부, 부패취약 분야 교육을 개설·실시했는지, 교육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는지 여부도 점검해 가점을 주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공직자에겐 다른 직급보다 더 적극적인 청렴 의무가 요구된다"면서 "부패방지과 공정한 행정이 체득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청렴 제주교육 추진 협력단'을 출범시켜 청렴도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2020년 즐겁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수기 공모

사업 목적

- 학생, 학부모의 학교폭력 경험 극복 사례 또는 동아리 활동 사례 공유를 통한 건강한 청소년 육성상 정립
- 학교폭력예방 우수 사례 또는 학생 인성지도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 제로 문화 확산
-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기여한 시민단체 활동 공유를 통한 사회적 책임의식 확산

공모내용

- 작품분량: 수기
- 공모기간: 2020. 5. 20. (수) ~ 11. 10. (화)
- 결과발표: 2020. 11. 16. (월), (결과발표는 행사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공모란 참조
- 공모대상: 1)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2)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또는 교사동아리 및 교직원
3) 도내 시민단체 또는 사회기관 또는 도민
- 공모주제: 1)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 학생으로서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 및 이를 극복한 사례
-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학부모로서 자녀의 바른 성장을 이끈 사례
2)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또는 교사동아리 및 교직원
- 교사로서 학생 인성지도를 통해 즐겁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운영 수기
3) 도내 시민단체 또는 사회기관 또는 도민
- 시민단체 또는 사회기관으로서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기여한 사례

시상내용

구분	도지사상	교육감상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상	법무부법사량위원 제주지역연합회장상
학생 또는 학부모	대상	학생 또는 학부모 중 2명	학생명 학부모명 500,000원	학생 또는 학부모 중 2명 500,000원x2
	상금	0	0	0
교사 또는 교사동아리 또는 교직원	대상	교사 또는 교사동아리 중 2명	1명 또는 동아리 1,000,000원	교사 또는 교사동아리 중 2명 1,000,000원x2
	상금	0	0	0
도민 및 시민단체 사회기관	대상	0	1단체(기관)	0
	상금	0	0	0

* 단, 해당 부분의 시상자가 없을시는 다른 부분의 시상자로 대체함

응모요령

- 작품분량: A4 3~5쪽
- 여백: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꼬리말: 각각 15
- 글자 모양: 바탕체, 제목 20p, 본문 12p, 자간 0
- 문단모양: 문단 위0, 문단아래 0, 줄 간격 160
- 제출서류: 공모 수기 원고 또는 hwp 파일
- 작품접수: 우편 또는 메일 접수
- 접수처: - 우편: 우)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5길 3 제주지방검찰청 503호 법사량위원실
- 메일: bumbang4975@naver.com
- 문의: ☎ 064-758-4975, 729-4578

심사

- 심사 기준: 1) 경험, 활동, 프로그램 등의 구체성
2)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노력 정도
3) 학생, 학부모 또는 학교의 변화 정도
4) 공유 및 확산 가능성 등

시상식

- 일 시: 2020년 11월 중 수상자 개별통지 예정 (추후 공지)
- 장소: 추후 결정
- 시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법사량위원 제주지역연합회장 (범죄예방을 위한 한마음 대화 시 시상)

주최·주관: 법무부법사량위원제주지역연합회

후원: